



NEWS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기자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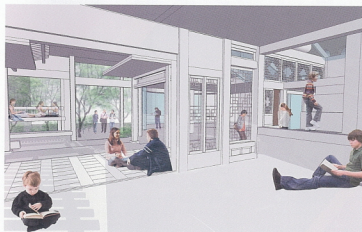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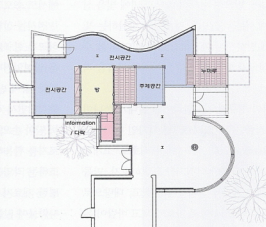
## 사람들이 건축에서 만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서울 대학로 이르크미출판사에서 제2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의 전시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관 커미셔너로 지난 1월 권문성건축가, 상권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씨가 선정된 데 이어 한국관 전시에 참여할 다섯 명의 건축가로 신승수(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주(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충구(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장규(구기도시건축 대표), 하태석(아이아트건축 대표) 씨가 결정됐다.

올해 8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될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전 세계 건축가의 축제다.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건축가 제자카 카즈요는 이번 전시의 전체 주제를 '사람들이 건축에서 만난다 (People meet in Architecture)'로 정했다. 세지마는 '개인', '사회', '건축'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올해로 7번째로 참여하는 한국관의 주제는 '리·플레이스·잉(Re·PLACE·ING)'이며, 부제로는 '암흑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다. 그 변화의 대상에는 건축 도시, 공동주택 아파트, 일상의 삶과 도시 환경이며, 변화의 기준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된다. 또 '베트로폴리스 서울의 비전과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커미셔너 권문성 씨는

"한국전경 이후 고속성장을 겪어온 서울의 변화를 기록해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베니스 카스텔로 비엔날레 공간 내 한국관 위치는 베니스의 물과 자연, 공원이 만나고 소용되는 장소다. 더불어 한국관은 유일하게 외부 환경에 열려 있어 한국 전동건축의 공간감을 활용케 하며, 자연과 바다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국관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전시관이 될 것이다. 전시관의 전체적인 계획은 한국관을 한국의 전통 정자와 같은 장소로 꾸며 관람객들이 친근하고 쉬며, 관람하는 장소로 만들어 전체 주제에 어울리는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장소는 물결치는 입면을 가진 A홀로서 자유로우면서 삶과 밀접한 환경으로 전시 공간, 주제 공간, 땅, 다락, 누마루 등을 계획했다. 특히 유리창을 활용해 실내 공간에 자연광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형의 B홀은 퍼블릭한 전시 공간이며, 원형 높이를 2배 높여 외부에 주제를 표시하기도 했다. 세 번째 박스 형태의 C홀은 6면 전체에 영상을 투사시켜 적극적인 인터페이스



와 미디어로 활용하며, 스마트폰으로 관람과 원격 관람자의 인터랙티브한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 즉 관람자가 스마트폰에 자신이 원하는 관람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주거 유닛이 제시된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면서 권문성 씨는 "지난해까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주로 작가 개인의 개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한국관은 전체적인 조화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하며, 참여 작가 중 조장규 씨는 "우리 삶의 행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리플레이스(replacing)'에서 '플레이싱(placing)'의 가치로써의 한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태석 씨는 "언제부터인가 건축이 일상과 괴리된 채 하이아트화 된 것 같다"며 "이제는 다시 실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공간에 참여를 하고 커뮤니티를 회복해 다시 사회적 도시를 만드는 '비분화된 생활로 직분화된 도시'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찰과 미래 서울의 모습의 가능성을 가능하는 전시가 준비되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 중 총감독을 비롯한 역대 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들에 의해 기획된 '건축의 토요일'이라는 세미나를 갖고 국제적인 건축가, 비평가들이 토론과 대화, 퍼포먼스 등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관은 8월 28일에 개막식을 할 예정이며, 귀국 전시회는 내년 2월에 있다.

글 이문기 기자 사진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